

현안과 과제
2010 - 01

높은 가산금리와 안정화 방안

2010. 1. 14.

- I. 가산금리 현황과 문제점
- II. 가산금리 결정 여건 변화
- III. 시사점과 안정화 과제

Executive Summary

□ 높은 가산금리와 안정화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기조 속에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 증가, 경영여건 악화, 대출 기준금리의 역할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빠르게 상승시켰다. 은행권의 경우 1.5%p 이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3%p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의 절대 수준이 우리나라와 금융시스템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국내 비은행권의 경우 국내 은행권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가산금리 큰 폭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잠재된 가계부채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영환경 악화를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처할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첫째, 금융위기로 상승한 신용위험이 2009년 하반기 들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둘째, 금융기관 경영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최근 지속된 신규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잔액기준) 급증 등에 힘입어 은행권 역마진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악화된 은행권 자금 조달구조가 금년 3월 이후 다시 회복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셋째, 대출 기준금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행 대출 기준금리로서 CD금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발표된 은행권 평균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산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금융관련 당국은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절한 대응과제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출금리 금리체계가 변경되더라도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리에 대한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산금리에 대한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도 과학적인 가산금리 시스템 도입,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무한 금융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용등급 시스템(CRS),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 등 선진금융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대출 가산금리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 가산금리 현황과 문제점

○ (가산금리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기조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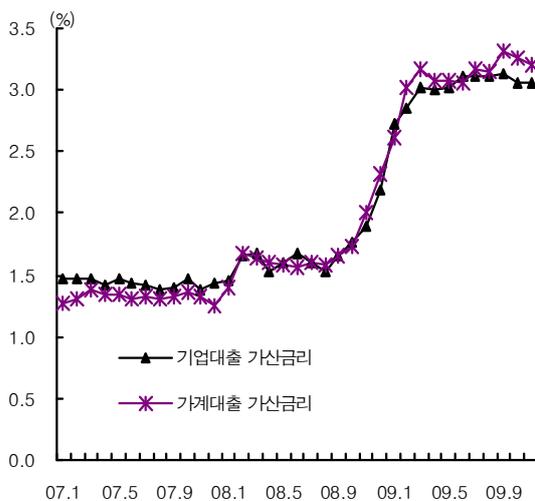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 신용도·기간 기여도, 가산금리(스프레드), 그리고 조정요소 등에 의해 결정
 - 자금조달비용은 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대출금리의 대부분(70% 이상)이 CD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사용

$$\text{대출금리} = \text{CD유통수익률} + \text{신용도} \cdot \text{기간기여도} + \text{가산금리(스프레드)} \pm \text{조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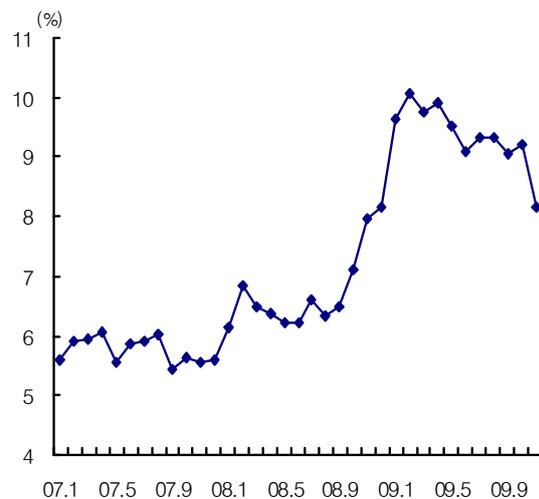
(조정요소 : 비제조업가산금리, 우량 중소기업 우대 적용, 특별금리, 특인금리 등)

-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 증가, 경영여건 악화, 대출 기준금리의 역할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산금리를 큰 폭 상승시킴
 - 은행권의 가산금리(기업 및 가계, 신규대출 기준)는 위기 이전 1.5% 수준에서 1.5%p 이상 상승, 2009년 11월 현재 3% 이상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위기 이전 6% 수준에서 3%p 이상하여 2009년 9%대로 급등하였다가 2009년 11월 현재 8%대에 머물고 있음

< 은행 가산금리 추이 >



< 상호저축은행 가산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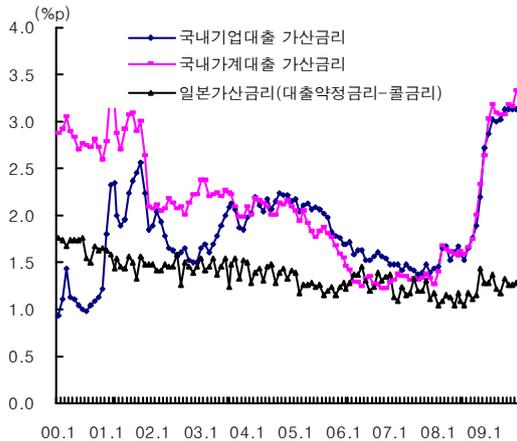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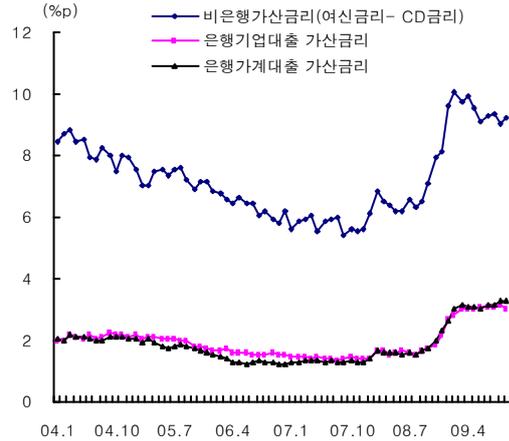
주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일반대출 여신금리를 사용.

-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가산금리는 CD 금리가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지만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
- 국내 금융시스템과 유사한 일본 등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높은 상황¹⁾
- 특히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의 가산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

< 한 · 일 가산금리 비교 >



< 은행 · 비은행 가산금리 추이 >



자료 : BOK, BOJ

○ (가산금리 상승의 문제점) 높은 가산금리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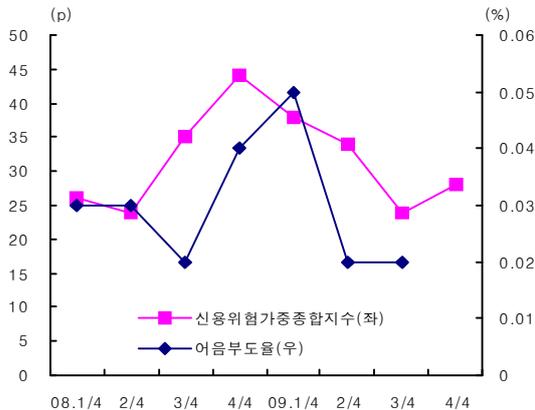
- 높은 가산금리 부과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금융기관의 경영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침
 - 시장금리 급락에 예금금리는 즉시 반영되는 반면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부담을 신규예금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
 - 가산금리 상승은 결국 가계 및 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잠재된 가계부실 문제를 불거지게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영환경 악화를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처할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
 -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저리의 외국자금들이 진입해 올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시장 장악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1) 일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기 및 중기 대출의 경우 콜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장기 국채금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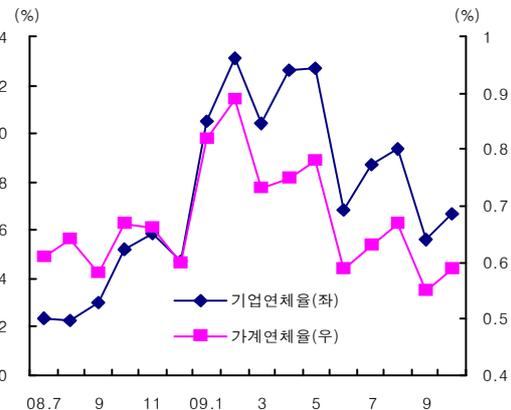
II. 가산금리 결정 여건 변화

- 최근 신용위험 하락, 경영여건 개선, 대출 기준금리 변경 등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 개선됨
- (신용위험 하락) 금융위기 당시 큰 폭으로 상승한 신용위험이 최근 금융 위기이전 수준으로 하락
 -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09년 하반기 들어 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까지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부진 지속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가계부문도 고용사정 악화 및 담보가치 하락 등이 우려
 - 기업대출 연체율이 2008년 9월 위기이전보다 1.7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2009년 10월 현재 1.2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가계대출의 경우 위기이전보다 1.5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2009년 10월 현재 위기이전 수준 이하로 하락

< 최근 신용위험 추이 >



< 최근 은행 연체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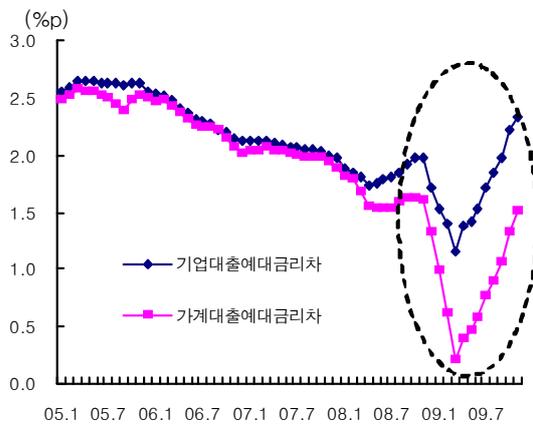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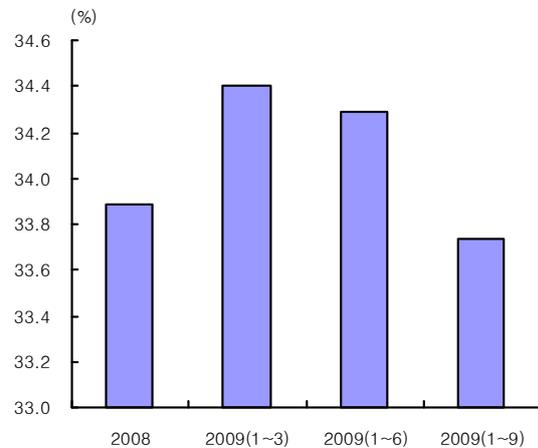
- (경영여건 개선) 금융기관 경영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영악화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최근 지속된 신규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급증 등에 힘입어 은행권 역마진 현상이 해소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들어 예대금리차가 급락하면서 2009년 3월 당시 기업대출은 1.15%, 가계대출은 0.21%를 기록하였다가 4월부터 빠르게 상승)
 - 2) 10월 중 전국 어음부도율은 10월 중 0.02%였지만 11월중에는 어음 위변조 등 특이부도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0.04%로 상승
 - 3) 11월 현재 기업대출은 위기이전 수준을 상회, 가계대출도 위기 이전 수준까지 근접

-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은행권 자금 조달구조가 회복 추세로 반전
- 2008년 하반기부터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자 원화사채 발행에 크게 의존하면서 원화 조달금리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무원가성 자금조달 비중(자기자본 제외)도 금융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상승
- 각종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고비용 장기 조달비중은 2009년 3월 이후 서서히 회복세

< 은행권 예대금리차(잔액기준) 추이 >



< 은행 고비용 조달비중^{주)}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원화(외화) 사채발행 + 원화(외화) 차입금 + 원화(외화) 기타 자금조달 합계.

○ (대출 기준금리 체계 변경) 대출 기준금리 변경에 초점을 맞춰 현행 CD 금리에서 벗어나 금융권이 공동으로 새 금리 체계를 만들기로 합의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상대적으로 비교대상 다른 금리보다 대출금리 기준금리인 CD금리를 급락
- 비교대상 시장금리(국고채, 통안증권, 산금채, 회사채수익률(AA-) 등) 중 위기 이전(2009년 10월)의 최고점과 위기 기간 중 최저점 차이를 비교하면 CD유통수익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3.62%p)
-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 평균조달 금리를 발표할 예정
- 은행채, CD, 정기예금 등의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를 주단위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단위로 공개

Ⅲ. 시사점과 안정화 과제

- (시사점) 신용위험 하락, 경영여건 개선, 대출 기준금리 변경 등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
 -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가산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하락 정도가 크지 않음
 -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및 연장시 가산금리를 0.2~0.5%p 인하 움직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1.5%p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

- (가산금리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가산금리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응 과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금융관련 당국은 금융소비자 부담 문제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금리 안정화 대책이 필요
 - 금융기관 부담이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 기준금리 변화를 예금금리 결정에도 적용하여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유도
 - 일시에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하지 않도록 가산금리에 대한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

 - 한편 금융기관도 과학적인 가산금리 시스템 도입,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용등급시스템(CRS),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 등 선진금융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대출 가산금리도 줄이도록 노력
 - 고임금, 고비용 조달비용 구조 등을 개선하여 경쟁력 확보가 시급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